

ch

22.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고 잤더니 너무 졸려요

학습목표 ‘-았/었/였더니’를 사용하여 행위에 이어지는 결과를 표현할 수 있다.

학습내용 - 았/었/였더니



생각해 봅시다



- 역사 드라마를 즐겨 보는 편이에요?
-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요?



본문

(아침, 거실 식탁에서 민과 엄마가 대화하는 모습, 민은 자기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는다)

- 엄마** 민아,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. 오늘따라 웬 늦잠이니?
- 민** 아~ 졸려. 어젯밤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고 잤더니 너무 졸려요.
- 엄마** 엄마가 드라마 볼 땐 싫어하더니 네가 안 보던 드라마를 다 보고 웬일이야?
- 민** 엄마, 다산 정약용이라는 학자 아시죠? 제가 그 학자에 대해 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, 마침 그 드라마를 재방송하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.
- 엄마** 그래? 어제 본 드라마는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재미있었어?
- 민**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억울하게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많이 쓰셨대요. 그 책 중 하나가 바로 제가 지난번에 읽은 목민심서예요.
- 엄마** 그랬구나.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훌륭한 분이 많단다. 역사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으니 다음 주에 역사 시험도 잘 보겠네? 기대할게.
- 민** (한숨을 쉬며)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언제나 시험 얘기로 끝난다니까.
- 엄마** 농담이야. 자, 빨리 아침 식사하고 학교 갈 준비해야지.
- 민** 알겠어요. 아침부터 엄마하고 얘기를 많이 했더니 배가 고픈데요.

도입 질문

- 1) 요즘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?
- 2) 어떤 드라마를 좋아해요?
- 3)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봐요?
- 4) 한국 역사에서 기억나는 인물에는 누가 있어요?
- 5) 정약용 선생은 어느 시대의 인물이에요?

본문 학습 순서

- 1) 도입 질문을 한다.
- 2) 본문을 듣기 전, 도입 그림을 보고 본문 내용을 유추해 본다.
- 3) 자막을 보지 않고 듣는다.
- 4) 이해 질문 1(포괄적인 내용 파악)을 한다.
 - 민과 엄마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? (답: 드라마)
 - 민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(답: 책을 찾고 있다.)
 - 민은 어제 어떤 드라마를 봤습니까? (답: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한 드라마.)
- 5) 질문 4)의 답을 염두에 두고 다시 듣는다.
- 6) 4)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한다. 그리고 이해 질문 2(세부적인 내용 파악)을 한다.
 - 민은 왜 늦게 일어났습니까? (답: 드라마를 보느라 늦게 일어났다.)
 - 목민심서는 다산 선생이 어디서 쓴 책입니까?(답: 유배지에서)
- 7) 새 어휘를 설명한다.
- 8) 한 문장씩 듣고 따라 하게 한다.
- 9) 학습자가 본문을 읽는다. (혼자 또는 짝지어)
- 10) 상황에 맞게 감정을 실어 읽는다.

*상황(학습자의 수와 학습 정도, 교실 상황 등)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.



내용 이해 질문

- (1) 민은 어제 엄마와 같이 드라마를 봤다.
 답 : (X) 엄마는 민이 어제 드라마를 봤다는 사실을 몰랐다.
- (2) 정약용 선생은 '목민심서'를 썼다. (O, X)
 답 : (O)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썼다.



어휘

N따라	格外	억울하다	冤枉
학자	学者	유배	流放
재방송	再次播放	수다를 떨다	了解之后

N따라: N에 특별히

- 오늘따라 왠지 기분이 좋다.
- 그날따라 그 사람을 길에서 자주 만났다.
- 어제따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.

학자: 어떤 학문을 깊이 공부하는 사람

- 학자는 어떤 분야에 대해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다.
- 대부분의 학자는 지구 온난화로 날씨의 변화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.
- 세계의 언어 학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모임이 다음 달에 서울에서 열린다.

재방송: 다시 한번 방송을 하는 것

- 오늘 '노인 만세'를 몇 시에 재방송하지?
- 어제 경기의 주요 장면을 재방송해 드립니다.
- 오늘 드라마를 못 볼 것 같으니 언제 재방송을 하는지 알아 봐.

억울하다 :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할 때 느끼는 답답한 마음

- 할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아버지는 병이 나셨다.
- 친구의 잘못인데 선생님께 내가 혼나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.
- 그릇을 깬 사람은 동생인데, 억울하게 나만 꾸중을 들었다.

수다를 떨다 : 보통 친한 사이에서 많은 말을 늘어 놓다.

- 그 여자들은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려는 것 같았다.
- 나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 시간 동안이나 수다를 떨었다.
- 너무 많이 수다를 떨었더니 입이 아파.



문법학습

- 았/었/였더니

과거의 어떤 완료된 행위에 이어지는 뒤 문장의 결과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.
 ‘아이스크림을 먹었더니 배탈이 났어요.’: 아이스크림을 먹은 행동의 결과 배탈이 났다는 뜻이다.

- ① 아침에 일찍 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.
- ② 친구한테 전화해 봤더니 아파서 집에 있었어.
- ③ 창문을 열고 갔더니 감기에 걸렸다.
- ④ 내가 먼저 사과했더니 그 친구도 미안하다고 했다.

문장 만들기

‘-았/었/였더니’를 사용하여 후행문에 알맞은 선행문 만들기

- 았/었/였더니 아이가 울었어요.
- 았/었/였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.
- 았/었/였더니 친구들이 놀렸어요.
- 았/었/였더니 배가 너무 고파.
- 았/었/였더니 키가 커 보인다.
- 았/었/였더니 선생님이 화를 내셨어요.
- 았/었/였더니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.

대화 연습하기

1. 지나: 엄마, 이 스웨터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?
2. 엄마: 저런. 스웨터를 세탁기에 빨았더니 줄어 버렸구나.
3. 민: 지호야, 치킨 좀 더 먹지 그래.
4. 지호: 아니. 두 조각 먹었더니 벌써 배가 부르네.
5. 지나: 오빠,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어요.
6. 지호: 오늘은 개교기념일이라서 쉬는 날이잖아.
7. 엄마: 머리 모양을 바꿨더니 이상한 것 같아.
8. 지나: 아니에요, 엄마. 훨씬 더 젊어 보이세요.



1. 과거의 완료된 행위에 이어지는 뒤 문장의 결과를 나타낸다.

-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. .
- 교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.
- 매일 수영을 했더니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다.
- 집에서 피자를 만들었더니 동생이 아주 기뻐했다.

2. 기본적으로 앞문장의 완료된 행위에 대한 결과가 뒤 문장에 나타나나 앞 문장의 사실이나 상황이 뒤 문장의 결과를 낳는 원인이나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.

- 창문을 열고 잤더니 감기에 걸렸다.
- 집에 늦게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꾸중을 하셨다.
- 컴퓨터 게임을 오래 했더니 눈이 아프다.

3. '-았/었/였더니'와 결합하는 앞 문장의 주어는 보통 1인칭이 사용되며 화자가 경험하지 않은 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- (내가) 알프스에 가 봤더니 정말 환상적이었다. (O)
- 삼촌이 알프스에 가 봤더니 정말 환상적이었다. (X)
- (내가) 밥을 많이 먹었더니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다. (O)
- 동생이 밥을 많이 먹었더니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다. (X)

선행절의 행위가 후행절의 결과에 대한 이유나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데서 학습자들은 '-았/었/였더니'를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보기가 쉽다.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행위에 대한 결과가 원 의미임을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오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.

선행절의 주어는 보통 1인칭이나 다음과 같이 간접 인용의 경우에 2,3인칭이 나타날 수 있다.
예)-지호가 감기에 걸렸을 때, 이약을 먹었더니 금세 나았다고 했어요.
-할아버지가 오늘 산에 가셨더니 뱀이 나왔대요.



1. 빈 칸에 알맞은 말을 <보기>에서 골라 쓰십시오.

억울하다 수다를 떨었다 따라 학자 재방송

- 1)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다.
- 2)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따라 자꾸 전화가 오네.
- 3) 지난번에 못 본 드라마의 재방송 을/를 기다리고 있다.
- 4) 그 사람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이다.
- 5) 수업 시간에 친구가 떠들었는데 나도 같이 선생님께 혼나서 너무 억울하다.

해설 : 1)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다.
 2)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자꾸 전화가 오네.
 3) 지난번에 못 본 드라마의 재방송을 기다리고 있다.
 4) 그 사람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이다.
 5) 수업 시간에 친구가 떠들었는데 나도 같이 선생님께 혼나서 너무 억울하다(억울했다).

2. 빈칸에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.

- 1) _____ 오늘 좀 피곤하네요.
 - ① 늦게 자면
 - ② 늦게 잤더니
 - ③ 늦게 자더라도

해설 : ①은 가정하는 사실이므로 피곤할 거라는 추측의 내용이 오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. ③오늘 피곤하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가정의 ‘-더라도’가 올 수 없다.

- 2) 어젯밤에 _____ 눈이 많이 부었어요.
 - ① 울었더니
 - ② 내가 울더니
 - ③ 민이가 울었더니

해설 : ②는 ‘-더니’에서 내가 주어가 될 수 없다. 또 ③은 ‘-았/었/였더니’는 자신이 주어가 되어야 하므로 ‘민이가’가 올 수 없다.

- 3) 점심을 많이 먹었더니 _____.
 - ① 배가 부를까요?
 - ② 배가 부를 거예요.
 - ③ 지금까지도 배가 불러요

해설 : 점심을 많이 먹어서 지금도 배가 부르다는 의미이다. ①과 ②는 의문과 추측으로 두 답안 모두 점심을 많이 먹은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.

1. 어휘 연습

- 2) ‘따라’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주로 결합하며 앞 명사에 붙여 쓴다.
- 5) ‘억울하다’의 품사는 형용사임에 주의한다.

2. 문법 연습

문법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.

[-았/었/였더니]

- 완료된 행위에 이어지는 결과
- 주어가 보통 1인칭
- 경험한 일만 사용 가능.

학습자가 답항을 보기 전에 스스로 문장을 연결해 보도록 지도한다.

학습자가 문장을 직접 연결할 때는 학습자 급에 알맞은 문형과 어휘를 사용하도록 한다.

예) 고급 학습자

① 늦게 자서 오늘 피곤하다.

② 늦게 잤더니 오늘 피곤하다.

①, ② 모두 의미상 맞는 문장이지만 고급 학습자는 ①보다 ②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.

3.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

1) 엄마: 여보, 왜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고 있어요?

아빠: _____

- ① 책을 많이 읽는 만큼 지식이 쌓이지 않아요.
- ②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잠이 안 오네요.
- ③ 책을 읽기는커녕 요즘 신문도 못 보고 있어요.

해설 : 엄마는 아빠에게 늦은 시간에 책을 왜 읽냐고 묻고 있는데, ①은 책을 읽어도 지식이 안 쌓인다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. ③은 책을 읽고 있는 상황이므로 요즘 책을 못 읽는다는 대답은 적절하지 않다.

2) 민: 요즘 다이어트 하더니 살이 많이 빠졌네?

지영: _____

- ① 운동을 했더니 살이 좀 빠졌어.
- ② 운동을 하긴 하지만 살이 빠졌어.
- ③ 운동을 하더라도 살이 안 빠질 수도 있어.

해설 : 어떤 방법으로 살이 빠졌는지에 대한 대답이어야 한다. ②의 '-긴 -지만'은 앞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어야 하므로 맞지 않는다. ③은 질문과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다.

3) 아빠: 시장에서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?

엄마: _____.

- ① 시장에 갔더니 문을 닫았더라고요.
- ② 시장에 갈 테니 집에서 기다리세요.
- ③ 시장에 간 김에 우유도 사 왔어요.

해설 : 엄마가 시장에서 빨리 돌아와서 아빠가 그 이유를 묻고 있다. ②와 ③ 모두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다.

3. 대화 연습

- 자연스러운 담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연습이다.
 - 정답 이외의 질문을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한다.
- 예)
- A. 왜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고 있어요?
- B.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한번 읽었더니 눈을 떼 수가 없네요.
- B'. 저녁을 많이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서요.

과제

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좋은 공부 방법이 있습니까? 경험이나 사례가 있다면, 그 방법을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. 단, 다음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. 단, 아래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.

- ‘-았/었/였더니’를 사용해야 한다.
- 문어체(‘-다, ㄴ/는다’)로 써야 한다.
- 400~600자 정도로 써야 한다.

예시답변

나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발음이었다. 문법은 열심히 공부하면 잘 할 수 있었는데 평소에 한국어를 많이 쓰지 않아서 발음이 좋지 않았다. 처음에는 그냥 발음이 나빠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발음이 안 좋으니 한국말을 할 때 자꾸 자신이 없어졌다. 그래서 발음을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한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. 나는 먼저 내가 한국어 책을 읽는 것을 녹음했다. 그것을 들었더니 내 발음 중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알게 되었다. 그리고 한국어 책에 있는 CD를 듣고 따라 읽었다. 그렇게 계속 연습했더니 발음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.

<이하 생략>

도입 질문

- 한국어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.
- 말하기/듣기/읽기/쓰기를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가?
-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는가?
- 어떤 점에서 효과적이었는가?

작문 지도

- 지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.
- (직접 경험한 일, 문형, 문체, 길이)
- 글의 구성이 짜임새 있어야 한다. (처음-중간-끝)
-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.
- 학습 수준에 맞는 문형과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.
- 맞춤법, 띄어쓰기, 문장부호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.



함께 풀어봅시다

1. ‘-았/었/였더니’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십시오.

1) 지영: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?

지나: 어제 책을 읽느라 늦게 _____ 좀 피곤하네.

2) 엄마: 간식 좀 줄까?

지호: 아니요. 아까 빵을 _____ 아직도 배가 부르네요.

3) 민: 지나야! 내가 부탁한 책 사 왔어?

지나: 아니, 못 샀어. 아까 서점에 _____ 문을 닫았더라고.

4) 엄마: 어머! 수학 점수가 아주 좋네. 수학이 어렵다고 하더니 어떻게 잘 봤어?

민 : 헤헤. 요즘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_____ 점수가 잘 나왔네요.

5) 지호: 지영이가 학교에 안 왔네. 왜 안 온지 알아?

민 : 응. 아까 _____ 감기가 심해서 집에서 쉬고 있대.

2.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.

1)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더니 _____.

2) 컴퓨터 게임을 많이 했더니 _____.

3) 지하철에서 _____ 사람들이 쳐다 봤어요.

4) _____ 살이 많이 빠졌어요.

5) _____



함께 풀어봅시다 (답안지)

1. ‘-았/었/였더니’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십시오.

1) 지영: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?

지나: 어제 책을 읽느라 늦게 잤더니 좀 피곤하네.

2) 엄마: 간식 좀 줄까?

지호: 아니요. 아까 빵을 먹었더니 아직도 배가 부르네요.

3) 민: 지나야! 내가 부탁한 책 사 왔어?

지나: 아니, 못 샀어. 아까 서점에 갔더니 문을 닫았더라고.

4) 엄마: 어머! 수학 점수가 아주 좋네. 수학이 어렵다고 하더니 어떻게 잘 봤어?

민 : 헤헤. 요즘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더니 점수가 잘 나왔네요.

5) 지호: 지영이가 학교에 안 왔네. 왜 안 온지 알아?

민 : 응. 아까 전화했더니 감기가 심해서 집에서 쉬고 있대.

2.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.

1)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더니 집이 더러워졌어요.

2) 컴퓨터 게임을 많이 했더니 눈이 많이 나빠졌다.

3)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웃었더니 사람들이 쳐다 봤어요.

4)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살이 많이 빠졌어요.

5) _____